무주·영동·김천 대화합 이루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개최
3개 시·군 1500명 한자리
산상음악회 등 뜻깊은 시간

무주군은 10일 설천면 미천리 삼도봉 정상 대화합 기념탑에서 제30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개최돼 전북 무주와 충북 영동, 경북 김천시민이 한 자리에 모였다.

무주군은 10일 설천면 미천리 삼도봉 정상(1,176m) 대화합 기념탑에서 제30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개최돼 전북 무주와 충북 영동, 경북 김천시민이 한 자리에 모였었다고 밝혔다.

3도 3시·군 주민들이 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김천시(문화원)에서 주관해 열린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김충섭 김천시장과 정일택 영동군 부군수,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등 3개 시·군 의회 의장과 의원들, 그리고 무주문화원 맹갑상 원장 등 3개 시·군 문화원장과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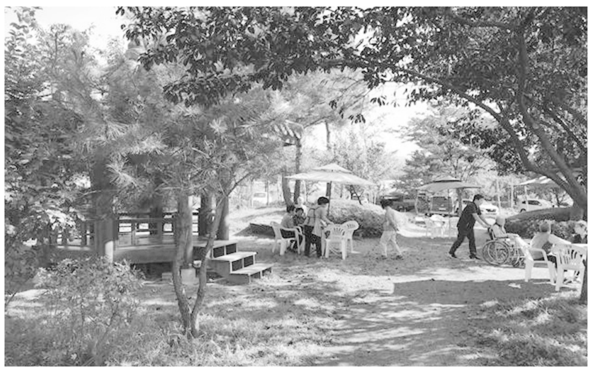
참석자들은 초헌례와 아헌례, 종헌례로 삼도화합을 기원하고 성악과 통기타 연주가 어우러진 산상음악회를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세 지역 주민들은 "무주와 김천, 영동이 특별한 마음으로 만나 이웃사촌의 정을 나눈 지가 올해로 벌써 30년이 됐다니 정말로 대단하단 생각이 든다"라며 "지역도 말씨도 다르지만 이렇게 만나면 가족을 만난 듯 반갑고 참 좋다"라고 전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1989년 무주군의 제의로 시작돼 올해로 30회를 맞았으며 그간 공동사업에 대한 성과를 일궈내며 다른 지역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무주와 영동, 김천시가 함께 산골마을 의료·문화행복버스를 통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2017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오지마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등의 지역협력 사업 등도 추진해 2016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우수기관 표창(2016 지역발전사업 생활권 운영 우수기관)을 수상하기도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경계를 달리하는 세 지역이 넘치는 정으로, 또 각자의 역량으로 상생을 위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며 "30년의 인연이 후손대대로 이어져 각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믿음의 집'이 산림청 주관 복지시설 나눔숲 분야 우수사업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진안, 복지시설 나눔숲 분야 으뜸

산림청 우수사업지 선정
휴식장소 산책공간 활용

진안군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믿음의 집'이 산림청 주관 복지시설 나눔숲 분야 우수사업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은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내에 작은 숲, 옥상녹화, 실내정원 등을 조성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유도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기여하는 소외계층의 공공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진안읍 반월리에 위치한 믿음의 집은 2012년도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2,150㎡ 규모에 교목, 관목 2,200주를 식재했으며 작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풍·치매 등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드신 어르신들과 정신장애 및 지적장애로 인해 사회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우들의 유용한 휴식장소이며 산책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진안군은 내년도 복지시설 나눔숲 공모사업에 '임마누엘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신청했으며 지난 8월 현장심사를 마쳤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녹지공간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발굴해 나눔숲을 꾸준히 조성하고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메아리

친환경 쌀 재배지원사업 접수

진안군은 환경 친화적 자연순환농법 정착과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확대를 위해 친환경 쌀 재배지원사업을 이달 말까지 신청 받는다.

군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쌀 재배 지원사업으로 토양과 수질오염 방지, 농가의 생산비 절감, 농업인의 건강 도모, 진안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 1석 4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체 벼농사를 제초제 없는 우렁이 농법으로 전환하고 무농약과 유기농법으로 시행하는 친환경 쌀 재배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쌀 재배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31일까지 친환경품질인증서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최소면적 0.1ha이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ha당 유기인증 65만원, 무농약 48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농지는 인증갱신 또는 신규인증을 통해 9월 30일 현재 친환경품질인증이 유효한 쌀 재배농지다.

흑미, 특수미를 재배한 경우도 해당되며, 현지 확인 작업을 통해 11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친환경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확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주민시네마스쿨 교육생 모집

장수군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상·영화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주민시네마스쿨 하반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시네마스쿨은 영상 영화 콘텐츠 제작 교육을 통해 지역의 이야기를 주민 스스로 콘텐츠화하고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은 영상물 제작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며 디지털카메라 촬영 교육 및 실습, 영상촬영, 편집, 영상 만들기 등 기본적 교육부터 연출과 구성, 시나리오 작성, 촬영실습, 편집 기술 등을 교육한다.

이번 2018년 하반기 교육은 10월 17일부터 12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6시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참여는 장수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모두 참여가능 하며 신청은 15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dkdud2204@naver.com)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장수군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팀(063 350-2316), 또는 전주시민미디어센터(063 282-7942)로 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 홍삼 바로 알기' 주제관·체험관 운영

축제기간 풍성한 체험거리
하루 5회·회당 20명 운영

진안군은 오는 18일부터 마이산북부 일원에서 진행되는 2018 진안홍삼축제에서 진안홍삼주제관과 홍삼연구소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홍삼축제 주제에 걸맞게 진안 인삼과 홍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한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진안홍삼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미래 고객인 어린이들에게 풍성한 체험거리를 준비했다.

진안홍삼주제관에서는 인삼의 연근별 모형전시, 인삼·홍삼 바로알기, 홍삼 명인·명품을 소개 전시한다.

또한 전통방식의 증삼법을 재현하고 진안홍삼의 우수성도 홍보한다. 또한 추억의 뽑기 이벤트를 통해 진안홍삼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해 관광객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홍삼축제 기간 진안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홍삼연구소체험관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홍삼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홍삼 제품(홍삼환, 홍삼 초콜릿 등) 만들기 체험, 연구체험 등 어린이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한다.

체험을 완료한 학생에게는 진안홍삼 연구소 명예 연구원증을 발급할 계획이며 체험은 하루 5회, 회당 20명 내외로 운영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2018 주민리더 양성과정 개강

지역맞춤 특색개발을 통한 세계적인 으뜸관광을 지향하고 있는 무주군이 10일 2018 주민리더 양성과정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주민리더 양성과정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마을로 가는 축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해소하고 발전을 도모해 간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한다.

대상은 마을로 가는 축제 참여 마을리더와 희망마을 주민들로, 무주군은 오는 11월까지 5차에 걸쳐 △관광자원 발굴을 비롯한 △기획안 작성 요령과 △현장운영 코칭, △고객응대 등 실무 위주의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10일 무주읍 앞섬 체험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1차 교육에서는 '농촌 어메니티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축제 트렌드 변화 및 성공 축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 참석했던 김 모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마을로 가는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 가능성 있는, 차별화되고 매력 있는 꺼리로 승부할 때라고 느껴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17일과 31일, 11월 7일에는 관광 자원 및 주도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강의가, 그리고 11월 12일에는 서비스와 고객응대를 비롯한 기획, 운영, 프로그램 개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내용이 공유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청 마을만들기사업소 김오수 농촌관광 담당은 "마을로 가는 축제를 통해 마을 공동체는 물론, 지역관광이 함께 되살아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임산부의 날' 홍보 합동 캠페인 전개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10일 제13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장수시장일원에서 '임산부먼저', '임산부를 배려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장수군의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에 대한 홍보와 상담을 진행했다.

또 외관상으로 표시나지 않는 임신초기 여성들이 공공장소 등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임산부 가방 고리를 보급했다.

이와 함께 장수의료원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인 △구강, 정신보건, 치매안심센터, 자살예방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지역사회 중심재활 △아토피피부염, 여성어린이, 국가암검진 사업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장수군은 출산장려금지급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난임부부지원, 산전검진 이송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출산 장려와 산모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